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崔鍾鵬
主幹 宋[illegible]

發行所
서울市中區淸淵洞 3街20
東國大學校內
社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3130~9
本社直通 ☎8498

每週 木曜日 發行

産大를 工科大學으로
17개 學科增設신청

二部大學 부활도
農大·師大발전에도 樂觀

學校當局은 産業大學을 工科大學으로 개편하는 한편 農林大學과 師範大學의 學科증설, 二部大學(야간부)의 부활계획에 따라 17개 學科 學則변경認可申請書를 文敎部에 제출했다.

대학교육의 시대적 요청 명칭을 바꾸는한편 기존학 다면 과 다원화에따라 이같은學과名도 개칭하고 電氣공학 학과에 신입생정원이 科증설계획을 세운 학교당 과를 증설한다는 방침이다. 국이 지난 10월25일 문교부 또한 68년도에 폐설되었던 8백15명이었은 예년에비해 8 을보면 二部대학의 7개학과를 백31명 (정원의 증원 1백 에 신청한 農大에 축산학과, 부활시키고 증설되면 도합17개 50여명포함) 이 늘어나는셈 원예학과등 2개학과를 비 학과가 신입생을 더모집할 이다. 학교당국은 학과증설에따 록하여 師範大에 體育敎育學 수 있게된다. 전면적으로는 른 학칙변경인가 신청의승 科등 5개학과를 증설하 증설인가가 인이 나는대로 곧그준비에 착수, 70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을세우고 그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있다. 신청원안대로 인가가 날 경우 체육과학과와 예능 교육학과등의 신설로 본교 는 학교발전에도 다양한 정서교육이 신학력을것으로 기대된다. 부서 설립중에있어 늦어도 가 부표될 예정으로있다. 문교부에 증설및 명칭개 정을 신청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증설학과
▲農林大學=畜産學科·園藝學科
▲工科大學=健築工學科
▲師範大學=敎育學科·外國語敎育科·家政敎育科·體育敎育科·藝能敎育科
▲二部大學=英語英文學科·史學科

◇改名學科 (産業大學→工科大學)
▲電子工學科(電子工學科)
▲土木工學科(都市工學科)
▲建築工學科(構築工學科)
▲化學工學科(衛生工學科)
▲高分子工學科(燃料工學科)
▲食品工學科(食品工學科)
▲工業經營學科(工業經營學科)
▲機械工學科(水資源工學科)(農業工學科)
▲經營學科(商學科換置)

◇二部大學(夜間)의부활
▲法學科
▲政治外交學科
▲行政學科 國語國文學科(警察行政學科 換置)
▲貿易學科(商學科換置)
▲經濟學科(警察行政學科)

이번 신청한 學科증설 및 改名學科 등은 지난 1학년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69년도 2학기 학기말시험 10월부터 19일 까지 실시 된다. 이보다앞 조한 英語와 英作시험은 8월 교양학부에서 실시되는데, 교양학부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에도 영어·영작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스쿨을 개설하게 된다. 학기말 시험은 10월부터 13일까지, 각각 나누어 실시하게되는데, 1학년과 2, 3학년은 각각 1일부터 19일까지 영어·영작시험은 4학년은 10월부터 13일오전 9시부터 오후2시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二部大學 (夜間) 의부활 이번 二部大學 (야간부) 의 부활은 69년도 2학기 학기말시험 10월부터 19일까지 실시 된다. 이보다앞 조한 英語와 英作시험은 8월 교양학부에서 실시되는데, 교양학부에서는 이번 겨울방학에도 영어·영작성적이 저조한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스쿨을 개설하게 된다. 학기말 시험은 10월부터 1학년과 2, 3학년은 각각 1일부터 19일까지 각각 나누어 실시하게되는데, 1학년 영어와 영작시험은 10월부터 13일오전 9시부터 오후2시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二部大學 (야간부) 의 부활은 교양학부에서 실시되는 英語, 英作시험결과는 ①점수가 저조한 학생 ②지난 시험한 학생 ③점수를 취득치 못한 학생 ④점수를 받지못한학생 등이 모두 강의를 받아야 하는데 수강신청은 1일부터 13일까지 교양학부에서 접수한다.

이에따라 원터·스쿨 대상학생은 13일까지 수강신청을 해야한다.」

財團理事會
常任幹事에 黃眞璟스님
一部敎·職員이동단행

<黃眞璟 스님>

學校法人 東國學院 理事會는 지난30일과 1일에걸쳐 理事會를열고 學院운영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常任幹事제도를 신설, 監事인 黃眞璟스님을 상임감사로 선출하는 한편 학교당국이 제청한 硏究所長과 敎授陣보강을위해 신규채용과 승진및 이동을 의결하였다.

理事會에 常任幹事制를 두게된것은 本校를비롯한 學院산하 各附屬學校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고 宗團과 學校와의 긴밀한협조를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新任黃眞璟常任幹事는思想界의 巨匠 韓龍雲스님의 令孫으로 본교 총무원 재경국장을역임하고 부탁사 住持, 본교 監事등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理事會에서는 比丘尼 思想연구소장에 徐景洙佛大조교수, 海外開發硏究소장에 錢昌源 경상대 부교수를각각 발탁하고 敎授陣보강을위하여 大부교수로 建大교수를 佛문강원에서 李鎭益 박사를 物理科교수로 新規 등국대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 교계층 총무원 재경국장 ▲학교법인 등록학원 감사 ▲부탁사 주지 상임감사로 선출된 黃眞璟스님의 약력은 다음과같다. ◇黃眞璟스님 약력=▲思岡出生▲송남공후 마곡사에 南出生▲송남공후 마곡사에 불교전문강원에서 大敎科 졸업▲ 불교사업에정자로서는 교직과학교를이 27日까지교무과로 교원자격서류신청 교무과에 접수하고 교직과 교원자격증 및 교원자격증명서 (시·읍·면장발행) 2매 (반명함판) 6주일인지 대학 성적증명서 (4백원) 등을 PR일수없는 일동의 사기와 같다. 세째로 企業PR의경우 品質管理의 미비를 매꾸기위하여 이용되는 활동을 PR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불수있다.

그것은 오히려 反PR로서 社會책責任을지는 倫理인 행위이기 보다는 오히려 反社會적인것이다.

그렇다면 PR (公共關係) 의정의는 어떻게 내려져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PR란 公衆또는 公共과의 관계에 있어서 好意感을 助成하고 스스로 社會

<徐景洙 所長>

<錢昌源 所長>

硏究所長·課長更迭
比思硏所長徐景洙·海外開發硏所長錢昌源교수

東國學院 理事會의 발령에 따라 그간 공석중이던 比峻思想연구소장에 徐景洙 불교大 조교수, 海外開發연구소장에 錢昌源경상大 부교수가 각각 임명되어 硏究所의 발전에 萬全을 기할수있게 되었다.

이두 硏究所長의 起用은 학교측, 교생실습을 교원자격증 교원자격증명서를 오는27일까지 제출할 것을 바라고 있다. 신청서류는 ①검정원서 1통 (시·도교육위원회에서교부) ②이력서1통 (시·도교육위원회에서교부) ③호적초본1통 ④신원증명서 1통 ⑤사진 2매 (반명함판) ⑥주민등록등본 (시·읍·면장발행) 등이다.

佛敎교육 발전위해=
50萬원喜捨
李漢相社長

<李漢相 社長>

大韓佛敎신문사 사장이며 본교 재단 理事會 감사인 李漢相씨는 지난1일 본교 50만원을 회사하였다. 의 불교교육 발전을 위해 독실한 불교 신자인 李漢相社長은 대한 전혀공사 사장으로서 경제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대韓생 불교연합회, 삼보학회등 많은 단체의 임원을 맡아 불교사업을 돕고있다.

4個種目서 優勝
레스링部, 青龍메달쟁탈전

조선일보사와 대한아마레스링연맹이 공동주최하는 제6회 청룡메달쟁탈전 겸 전국아마레스링대회에서 본교 레스링부가 6개종목중 4개종목에서 우승, 2개종목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지난 27, 28 양일에 걸쳐 한성여고체육관에서 벌인 이 경기는 자유형으로 「아시아」선수권대회예파승 ‖ 尹鎭和 (國映1) ▲페더급 (우승) ‖ 金文基(林3) 萬(貿1) ▲라이트급 (준우승) ‖ 宋成 (貿1) ▲웰터급 (우승) ‖ 金鎭國 (行2) 군 명의 선수로서 본교 레스링부 선수 선발전도 겸한 전국 아마추어 레스링 선수권대회에서 채경국장을역임하고 부탁사 住持, 본교 총무원 재경국장을역임한 바 있는 韓龍雲스님의 令孫이며 불교계의 중진인 黃眞璟스님의 令息이신 黃眞璟스님을 상임감사로 선출하는 한편 학교당국이 제청한 硏究所長과 敎授陣보강을위해 신규채용과 승진및 이동을 의결하였다.

오늘의 問題
PR의 意義와 그 責任

<法政大부교수> 李廷植

PR이라는 말은 外來語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쓰는것이 오히려 제대로 맞을 지는 그러나 굳이 우리말로 옮기는경우는 「公共關係」라고 새겨진다. PR (Public Relations) 라는 말의 원칙적인 美國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될수 있는 새나름의 定義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原語를 우리나라의 말로 옮겨 오는데는 어떠한 과학적인 노력없이 部分社會가 쓰기시작한데서 비롯한다.

「PR은 「公共關係」이기 때문에 그 PR을 필요로 하는 「公衆」(Public)의 生態에 따라 그 활동과 기술은 달라질수있다. 여러 公衆이 지니는 성격의 다양성은 PR의 개념의 다양성까지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여 PR은 一般PR과 企業PR 그리고 그밖의 特殊PR로 구별될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通用되고 있는 PR의 뜻과 그 實際를 잔우린다면 宣傳, 廣告, 政治宣 (Politiking) 또 심지어는 情報활동 (information activities) 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PR이 그와같이 歪曲되게 받아들여지게 된데는 우리나라의 狀況의 不安全性이 있다고 볼수있다. 즉 그 이유를 든다면 첫째로 PR은 大衆社會의 사회질서나 經濟질서 또는 消費社會秩序의 所産 더구체적으로말한다면 豆腐 등은 PR일수없는 일동의 사기와 같다. 세째로 企業PR의경우 品質管理의 미비를 매꾸기위하여 이용되는 활동을 PR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불수있다.

그것은 오히려 反PR로서 社會책責任을지는 倫理인 행위이기 보다는 오히려 反社會적인것이다.

그렇다면 PR (公共關係) 의정의는 어떻게 내려져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PR란 公衆또는 公共과의 관계에 있어서 好意感을 助成하고 스스로 社會的責任과 倫理를 겸비함으로써 社會의 組織活動이라고 할수있다. 즉 PR은 社會의 組織活動이라고 말할수 있다. 宣傳과는 구별된다. 宣傳이라는 말은 어떤 主義나 主張을 普及하는 利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극단적으로 한다면 營利와도 구별된다. 광고는 商品 또는 生産品의 販路를 개척하여 利潤을 增大시키는 목적의 활동이다. 또한 情報 (information) 活動과도 구별된다. 情報는 諜報라는 달리 소식이나 情況을 알리는 것으로서, PR활동을 위한 예비지식의자료에 지나지않는다.

PR활동이 그와같이 어렵기때문에 管理機能에 있어 善導의기능이 되는것도 거기에 이유가있는 것이다.

또한 學校PR의 경우도 學校당국과 學生이 學校以外의 公衆을상대로한 敎育의 社會的責任에 관한 활동이지 없는 學問업적을 조작하여 거짓情報 (Information) 을 제공하는 따위는 PR일수없다.

즉여러학교가 있는데 그러러학교의 비교하여 어떤특색을 지니고 그특색이 敎育을 위하여 어떠한 도움을 주는 社會를 위하여 어떠한 도움이되고 있다는 식의 내용이 곧 PR활동인 것이다. 따라서 學校 PR은 주로師弟社會와의 관계에서 펼치는활동을 취지하는 것이다.

PR에 관한한 P.R 그자체나 本質은 크게문제가 되지않는다. 오히려 PR활동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企業PR이 아무리 利得은 社會倫理에 기여하는 PR활동은 경우도있다. PR이아니라 선전이고 광고이다. 그리고企業PR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商品의 品質管理로 얻어진 社會的 商品販賣를 PR활동의 획득만을 PR활동의 대상으로 한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여 製造業體 자각을하고 情나라의 經濟秩序를 혼란케하는것에 지나지않는다.

PR활동이 그와같이 어렵기때문에 管理機能에 있어 善導의기능이 되는것도 거기에 이유가있는 것이다.

公共관계의 社會的 책임지는 倫理활동

지는 社會의 倫理적인 責任을 지는 社會의 倫理활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宣傳과는 구별된다. 宣傳이라는 말은 어떤 主義나 主張을 普及하는 利潤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극단적으로 한다면 營利와도 구별된다. 광고는 商品 또는 生産品의 販路를 개척하여 利潤을 增大시키는 목적의 활동이다. 또한 情報 (information) 活動과도 구별된다. 情報는 諜報라는 달리 소식이나 情況을 알리는 것으로서, PR활동을 위한 예비지식의자료에 지나지않는다.

PR활동이 그와같이 어렵기때문에 管理機能에 있어 善導의기능이 되는것도 거기에 이유가있는 것이다.

「깐디의 生涯와 思想」
「디봐카」씨강연

마하트마·깐디탄생 百주년기념위원장인 인도의「디봐카」씨가 오는11일來校 불교대학추최로 오전 10시30분부터「깐디의生涯와 敎訓과 思想」이란 연제로 중강당에서 강연을 하게된다.

강연회는 주한인도 총령 사로 부터「디봐카」씨의소개가 있은다음 총장의 환영사가 있으며 「깐디」의생애에관한 사진전 (40여점) 이열리게된다. 이자리에서 「디봐카」씨는 인도철학및 깐디에대한 서적다수를본교에기증할 것으로 보인다.

日渡昌華처장 趙
세미나서 主題발표

趙昌華 교무처장은 日本東京에서 열리는 독일 「에반트」재단주최 세미나에 참석하고 1日 回日 했다. 1日부터 10일까지 한국 일본을 비롯한 10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는이 번 세미나에서 「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와 공업발전」이란 주제로 반표하게된다.

「螢雪의午後성황」

장학생회에서는 지난27일 오후4시 본교 교수성당에서 「螢雪의午後」를 개최하고 장학생 교직원, 선배다수와 회원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

大學人事

▲교수 李鎭益 命 불교대·부교수 錢昌源 補 海
▲교수 金照宝 命 문리대·교수 徐景洙 補 比
▲교수 徐景洙 命 불교대·조교수 錢昌源 補 海
▲부교수 錢昌源 命 불교대·교수 徐景洙 補 比
▲교수 金鎭益 命 불교대·조교수 錢昌源 補 海
▲서서과장 徐廷天 命 도서관·열람과장 安益鉉 命 도서관·사서과장 崔哲洙 命 도서관·열람주임 ▲玄榮璨 命 도서관·사서주임 崔哲洙 命 도서관·열람주임

社告

이번 大學의 새로운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本社와 東大사진클럽이 공동주최한 제1회 캠퍼스 촬영대회 入賞者가 결정되었읍니다。이번 촬영대회를 계기로 「白鷺의 전」에 출품작과 사진클럽 회원전이 아울러 있게 됩니다。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入賞者

□特選=李春滿 (農1) 「佛心」

□佳作1=金年述 (政外1) 「사색의길」

□佳作2=안용준 「慈悲A」 (演映2)

심사위원=임정식 (서라벌藝大교수) 양영훈 (同門·사진작가)

展示會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白鷺의전」에서 사진을 협회원작품과 함께 출품작전시회를가집니다。

※入賞者는 4일까지 東大新聞社 사진부로 출두

東大新聞社
東大사진클럽

수리보리

母校발전에寄與

市內、敎職同門會성황

서울시내 교직동문간의 친목도모 및 돈독히 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기위하여 작년11월 결성된 敎職 同門會 (會員5백40명) 임시총회가지 29일 오후4시 본교 교직동문회의 수석에서 열렸다. 교직동문들과 金 鎭 회의는 학교장을 비롯한 學處長이 참석한 가운데열렸는데 회장 金 鎭 이고있는 모교발전에 직원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당부 했다.

이날 金총장은 축사에서 1년간의 모교발전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도약의 70년대 를향해 모교는 출발하고 있다는 그 의 모교 발전에 힘쓰자」고말했다.

이어 신임 研究所長 연구활동에 기대된다. 이 임명됨으로써 또한 도서관 司書課長에 安益鉉씨, 열람課長에 徐廷天씨를 등 主任級도 승진 및 명칭개정을 신청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증설학과
▲農林大學=畜産學科·園藝學科
▲工科大學=健築工學科
▲師範大學=敎育學科·外國語敎育科·家政敎育科·體育敎育科·藝能敎育科
▲二部大學=英語英文學科·史學科

◇改名學科 (産業大學→工科大學)
▲電子工學科(電子工學科)
▲土木工學科(都市工學科)
▲建築工學科(構築工學科)
▲化學工學科(衛生工學科)
▲高分子工學科(燃料工學科)
▲食品工學科(食品工學科)
▲工業經營學科(工業經營學科)
▲機械工學科(水資源工學科)(農業工學科)(農業工學科)
▲經營學科(商學科換置)

◇二部大學(夜間)의부활
▲法學科
▲政治外交學科
▲行政學科 國語國文學科(警察行政學科 換置)
▲貿易學科(商學科換置)
▲經濟學科

鄭大換美術展
白象의집서개최

학기초부터 열 예정이었던 鄭大煥(政外·2)군의 미술·자서전이 사정에 의해 미루어 오다가 지난1일부터「백상이 집」에서개최, 5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慈善展은 동국校友會에 따라 그간 공석중이던 比峻思想연구소장에 李기 영교수와 海外開發연구 소장 李昌培교수가 각각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이번 신임研究所長 및 課長 등 主任級도 승진 및 명칭개정을 신청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土曜法會再開
內部리·관계자등으로 休院

土曜法會는 다시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6일오후 3시부터 法會를 갖는다. 이번 토요법회에서는 「識 見을 통한 서양인의 생활」이란 연제로 徐景保 불교지도에 적극 협력 예정이 대학장이 설법을하게된다.

本교蹴球팀
결승전서분패

69년도 秋季大學연맹전에 출전한 본교 축구팀은「간 전에서 3대0, 1일에가진中 大와의 3대0으로 결승전에 진출하였으나 30일에가진 空士와의대 분패하였다.

지난21일부터 열린 리그전서는 10개팀이「가」 조와「나」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실력을 겨뤄왔다.

放送部
녹음구성「鷄龍山의新興宗敎」
最優秀賞차지
東洋、大學放送경연

東洋放送局 주최로 열린 제2회 대학방송연대회가 지난29일 동방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됐는데, 본교방송부가 녹음구성부문에 「계룡산의신흥종교」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또한 이날 있은 시상식에 개인상인 기획상에는본교 김烈(食工4)군이 차지하였다.

전국18개대학이 참가한이번경연대회에서 본교방송부는 계룡산에 사처 있는80여 조 예선 리그전서 우승팀은「간 30일에가진 空士와의대 3대0, 1일에가진中 大와의 3대0으로 결승전에 진출하였으나 30일에가진 空士와의대 분패하였다.

전서 지난21일부터 열린 리그전서는 10개팀이「가」조와「나」조로 나누어 각 조별로 실력을 겨뤄왔다.

시상식
전국대학장이 설립을 계획

시상식을맞이하여 이번 시상식에서는 앞으로 계속 선원에서는 앞으로 계속 보수등 모든 준비 선원에서는 앞으로 계속 보수등 모든 준비 선원에서는 앞으로 계속 보수등 모든 준비

社說

學生自治活動의 責任있는 指導를 바란다

오늘날의 교육이념이 민주교육에 있는한 특히 대학사회에 있어서의 대학생의 자치활동은 더욱 조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이나 써클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향상 방안을 깨려나가고 또 제도적인 대학 교육만으로서 충족될수 없는 「생활」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때문이다.

그와같은 대학사회의 대개의 경우 학생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처가있고 또 교수가 마련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활동을 유지하지못하고 대학생들은 그들의 활동을 목표를위하여 이용하려는 흔조가 생기는데 눈을 돌려, 학생들의 활동을 이유로 대학생들은 학교당국으로부터 차별대우를받거나 심지어는 학생들의 써클활동을 억제하는 경향마저도 보이는 필소(密訴)관계를 가지기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성격이 다양한 학생들의 자치및 서클활동에대한 지도를 일원화하여 일방적인 감독이나 통제의기능을 다하려는 경향도보인다.

그러한 방법이 민주교육 이념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 가장 비 민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도하는 관리 기능의 어딘가에 잘못된점이있고 그로되점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학생지도의 무능이라고 말해도좋고 또는 강자문이라고 말해도 좋을것이나. 문제는 그와같은 무능이나 역부족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즉 학생지도 담당자들의 그러한 편파성을 기르는것이 되거나 학생활동의 조성하는 결과에 이르른다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교육 이념의 보충을 위하여 생각해봤던것이다. 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부처에 문제는 있는것은아니다. 직접 또는 개별적 대학을 걸머지우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도를 맡지않지만 계획하고 있는분야에 관한 대학을 대표하고 있는 대학의명예 책임을 걸머지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지도 및 그밖의 모든 학생들의 생활경험을 대표하고 있는 대학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학생들의 자치및 서클활동에 대한 지도를 맡는 것은 물론

□ 제7회 논사學術賞 創作文學部門 장려상 수상작 □

우리들의 죽음

□ 戲曲 □

朴 亢 緖
<演映科 4年>

◇등장 인물◇
◇男 子
◇女 子

◇場面 그리고 注意◇

해변의 모래는 온통 보석가루다. 자갈 또 바위, 이 모두가 보석덩어리다. 무대 양편에 큰 바위 두개가 거의 매달려있는 것같은 모양을 하고있다. 이상하게 이 바위는 여분 중년 여인의 자신있는 두 가슴처럼 툭 튀어나왔고 꼭 가슴모양 섬. 이 바위는 점점 부풀어 막이 물결 그 물결에는 완전히 무대가 충만하도록 크게 자란다.

물론 이 가슴모양의 바위 사이에는 한 줄 줄이 단 한개의 처절한 그루위엔 억새풀이 즉어있다. 보석을 여기서 캐낸다. 그런데 그 보석은 유물과 꼭같은 모양의 금덩어리 이다. 이 어둡고 침침하고 질퍽한 굴속에서 유골모양의 보석이 빛나고 둥면 빛수있도록 여인의 가슴같은 보석바위는점점 점점 창한다.」

그유골들을 우울한 조명이 쌓쌓하게 음시하다가 그빛이 사라지며 새소리, 파도, 바람소리가 「크로즈·업」된다.

바로 그때 질척한 동물속에서 여인의 가느다란 비명소리, 다시 그비명과 파도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조화를 이루어 차근히 그 렬지만 천천히 사라지며 가슴과 얼굴에 피를 천한듯한 한 사내, 환금유골을 안고 그래도 퍽 활희에 차 등장한다. 그보석을 내려놓을때 여인의 비명이 다시 극장안을 메운다.

사내, 또다시 보석, 허나 황금유골인 그것을 캐어 한아름안고 나올때 여인, 사내가 황금유골을 못나르게 억제하는 몸짓으로 매달려 끌려나온다.

물론 여인도 사내도 모두가 털벗고 곰주린데다 반나체의 옷차림이다.

사내 유골같은 보석의 인술에 미친듯 맞추며 희열에 차 시시덕 낄낄댄다. 다시 이어 다른 보석을 캐려고 들어갈 때 새 바람, 파도소리「크로즈·업」되며 여인, 비명을 지르며 사내를 막아선다. 사내 그해골같은 보물을 혹시 뺏길 위기에 처한사람처럼 더욱 세게 그것을 안고 뒷걸음질친다.

여인=남은전 우리 돌팔매요. 그많은 사람들이 모두 당신처럼 보물만 캐려다가 자신의 몸주리고 썩은 유골만 안고 그속에 스스로 파묻혀 죽어버렸어요.

지금 당신이 안고 계신 그건 보물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당신의 사망인 것이예요. 그만두세요. 당신이 캐고 있는것은 당신의 해골이라니까요.

캐내는 여처구니 없는 그 첫때문에 인간의 권리도 자유도 사람도 스스로의 희미한 생명마저도 보석의 한조각, 유골의 한조각으로 만들고 계신거예요. 이제 그만 유골캐기를 멈내 주세요. 더이상 전 참을수가 없어요. 자신의 시체를 안고 오히려 시시덕대는 당신을 더 이상 볼수 없어요.

사내, 더욱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석을 감싸고 초췌한 얼굴을 비비며 포옹한다. 다시 색, 파도, 바람소리가 서서히「크로즈·업」된다.

여인=제발 저 소리 좀 들어보세요. 파도소리 저 새소리 바람소리 한번만이라도 들어보세요. 저 자연의 목신, 저 목메인 소리를 들어보세요. 저 새들 좀 보세요. 저 아우성치는 파도소리를 그울경을 보지란 말예요. 모두가 당신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당신앞에 그 순수한 저들이 유골을 애무하듯 저들 그만 두라고 호소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안고계신 그 멸망의 씨앗을 저 살인의 사내, 깔깔댄다. 무대를 덮어 허허되다가 별안간, 여인이 막아설 사이도 없이 굴속으로 퇴장한다. 여인 한쪽바위가 조금 커졌을 보고 소스라친다. 잠시 후 사내 아까보다 몇배큰 해골보석을 안고 환희에 차 등장.」

이것을 본 여인놀라 비틀거린다.「사내, 태연히 이보석에 입맞춘다.

여인=아! 그건 당신 아버님 어머님의 유골이예요. 그리고 아……

그건 당신 자신의!

사내, 더욱 그저 세계 포옹하고 깔깔거린다. 이때, 여인의 가슴처럼 돌출해 부푼바위쪽이 여인의 그것처럼 출렁댄다. 유골을 포옹하면 할수록 그 가슴모양의 바위는 경련하고 흔들거린다.

여인은 몸을 뒤틀며 신음소릴 낸다.

여인=자, 애원예요. 그 유골들을 모두 파라와 함께 돌이 뒤범벅이 되어 쏟아지고 여기저기「크레파스」들이 임을 떡벌리고 있었다.

그때 또 갑자기 력구름이 가득 모여들고 심상치 않았다. 「리더」 요꼬오(淺尾)씨는 下山을 명령「로폰」들 연결시켜 「앰컨」에 몸을 의지하여 우선「센트랄 히말라야」의 길로인「네팔」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나의「마터호른」은 완전히 끝났으며「공물함」에서만 남은 준비는 일본등반대원들과 합류하여 목표「마터호른」의 최단로스인 북벽로스를 등반키로 결정했다. 「마터호른」은 수많은 앞 피니스트들을 삼킨곳으로 현 일전 뉴스로도 5명의 유 텔등반가들이 조난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날 씨가 항상 변덕이 심한 것으로도 惡名높다. 우리 일행 15명은「헤 론」(3천2백m) 산장 에도착, 1박 1달러의 유 료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 내기로 하고 다음날 등 9시경에 출발하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밤 눈개비로 30분도 안돼 후 눈이 쏟아지고 여기저기 흩어지고 눈사태 일어나 산장 관리인은 밤 새 취침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하는수 없이 모두 잠자리에 들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새벽3시에 상하여「마터호른」을 향했다. 그러나 도중에 진 눈개비로 30분도 안돼 후 퇴하여 날이 개이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아침후 다. 부쩍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나는 다음「속벤하일」 정찰 준비 관계로 그곳 (스위스)에 머 더이상 머 무를 수 없어 일본 등 반대원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로마「나데타라」를 거쳐「뉴델리」행 여객기에 몸을 실었다.

8월24일 아침6시「뉴 델리」에 도착했다. 「히 말라야」의 길로인「네팔」에 들어서려면 이곳을거 치지 않을수없다. 「뉴델리」에서 1·3km.떨어진 「네팔」의 수도「카트만두」에 도착하니 이곳은 그나마 조용한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잠자동류로된 이 지방 특유의 식사를 하였다. 「성과」인「텔과」씨는 우리일행의 일거일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새부터「히말라야」등반은 시작되었다.

이와같이 이「핵빛속의 건포도」를 통하여 저의 나마 그들의 학우의식은 결코 그 흑백의 문제뿐이 아닌 인간체의 생활과 경부됨을 느끼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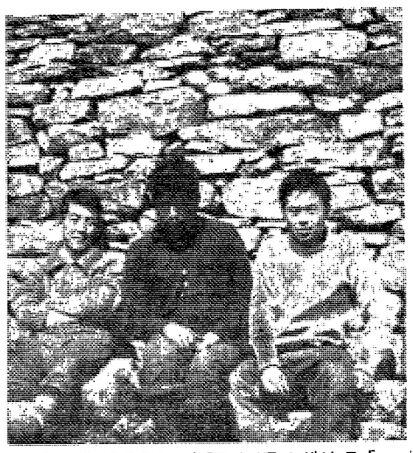
이출업공연에 출연한 스탭과 캐스트는 다음과 같다.

◇演출 柳在昌 ◇기획 玄德冰
◇캐스트 ▲진행 金敏淳 李 鍾映 ▲미술 洪淳昌 趙 成旭 ▲효과 金誌德 權 奇燮 ▲조명 金正浩 鄭 泰敦 ▲월터 嬉錫 ▲레나 權和順 ▲루 英淑 ▲트레버스 金正玉 ▲베네타 金 衡 ▲아사이 李根旭 ▲먼드너 池錫元 ▲리 炳福 ▲보브 金東完<완>

世界의 頂上을 밟다

吳仁煥「알프스·「히말라야」정복기

〈中〉



◇「센트랄 히말라야」의「고사인군트」에서 메이지」大生(左)과 셀파(네팔人·中)와 함께 여장을 풀고 포즈를 취한 오인환군

惡天候로「마터호른」정복은 취소, 空路로「뉴델리」에

대망의「히말라야」등반 스위스「등산가墓地」참배

전너편 계곡에선 눈보 라와 함께 돌이 뒤범벅 이되어 쏟아지고 여기저 기「크레파스」들이 임을 떡벌리고 있었다.

그때 또 갑자기 력구 름이 가득 모여들고 심 상치 않았다. 「리더」 요 꼬오(淺尾)씨는 下山을 명령「로폰」들 연결시켜 「앰컨」에 몸을 의지하 여 우선「센트랄 히말 라야」의 길로인「네팔」 (5천2백m)로 향했다. 「뉴델리」에서 1·3km.떨어진 「네팔」의 수도「카트만두」에 도착하니 이곳은 그나마 조용한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잠자동류로된 이 지방 특유의 식사를 하였다. 「성과」인「텔과」씨는 우리일행의 일거일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새부터「히말라야」등반은 시작되었다.

이와같이 이「핵빛속의 건포도」를 통하여 저의 나마 그들의 학우의식은 결코 그 흑백의 문제뿐이 아닌 인간체의 생활과 경부됨을 느끼게한다.

이출업공연에 출연한 스탭과 캐스트는 다음과 같다.

◇演출 柳在昌 ◇기획 玄德冰
◇캐스트 ▲진행 金敏淳 李 鍾映 ▲미술 洪淳昌 趙 成旭 ▲효과 金誌德 權 奇燮 ▲조명 金正浩 鄭 泰敦 ▲월터 嬉錫 ▲레나 權和順 ▲루 英淑 ▲트레버스 金正玉 ▲베네타 金 衡 ▲아사이 李根旭 ▲먼드너 池錫元 ▲리 炳福 ▲보브 金東完<완>

演映科 제7회 졸업공연

「中강당」과「드라마센터」에서

본교 연극영화학과는 창설된지 금년으로 꼭 10년이다. 그리고 부설 소극장도 개관10주년째이며 이는 대학극단에서 크게 주목되는 일인바 이를 기념하고 아울러 제7회 졸업기념공연을 가진다. 미국 흑인女流作家「로레인 헨스베리」의 희곡(梁炳鍾역)「핵빛속의 건포도」(3막 5장)를 레파토리로하여 그동안 全身投球의 맹연습을 한결과 드디어 4일부터 그 幕을 올린다. 4~7일간은 본교 중강당에서, 11~12일간은「드라마센터」에서 두차례에 걸쳐 공연한다. 이번 공연으로 演映科에서는 75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셈이다. <편집자>

헨스베리 作

「핵빛속의 乾葡萄」

實驗·純粹에의 意志

이번「핵빛 속의 乾葡萄」는 柳敏煥作「왜싸워」, 쏘포크레스의「오디프스王」, 앤더슨의「겨울과 부사이」, 밀러의「쎄일즈맨의 죽음」, 입센의「유령」, 그리고 작년도의 체홉作「와야냐 저씨」에 이어 일곱번째 갖는 졸업공연이다.

대학에서 공연되는 극은 일반기성극단이나 아마추어극단과는 순수예술 지실험정신과 순수예술 연정신 영리를떠나, 오로 지 상업적인 흥행을 떠난 순수예술에 대한 지향을 그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극은 무대에 올리고저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흑인들의 반항과 不條理에 대한 울분, 그리고 희망이 內在해있는「핵빛속의 乾葡萄」를 택하게된 것이라고.

「월터」라는 한 인물이 사는 가정의 애기를 통하여 새로운 주택으로옮기려는「레나」의 노력과 치슨 池錫元 ▲인드너 李炳福 ▲보브 金東完<완>

同門探訪

閔容植同門

〈一宇海運株式會社전문이사〉

○…「축구의 명문 東大」시절의 名「골·키퍼」 閔容植(46년졸업 學科 49년졸업)동문. 지금은 국내 유수의 해운회사 一宇海運株式會社전무이사로 활약하고 있는 동문은 「축구분야만 아니라 각종 운동경기의 전성기」라고 말하는 閔동문은「그때의 우리 선수들처럼 지금의 축구부원들 자세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고 축구부에 자못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갓 창설한 교내 축구부를 맡고있는데 불교합창단」까지 동원해 가며 뭔가를 남기려고 쓰는 月例法會는 주최측의 성의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아무래도 빛을 보지 못하는듯.

지난 1일의 월례법회 때만 해도 충 강당이 훵하도록 비어 있어 보기가 민망할 정도.

○…축계 대한축구연맹「리그」戰에서 계속「간」서 또 우승의 기회를놓 쳤으니 선수들은 더욱분발하시라!

○…大學街에서도 자랑거리이던 본교 대형 게시판이「호쯔키스」식으로 단신창이더니 목하 이쪽 저쪽 게시판이 산뜻하게 새단장을 하는중.

이를 본 K科의 金준호는「새 게시판 꾸고 제일 시작표가 아닐까」하고지레짐작 하기도.

그러나 제일호로는 演映科 졸업공연 포스터가 붙는데, 번역자 이름이 분명히 漢字로「鄭」字인데「텐」으로 적혀있어, 구성수를 면치 못하고 있다.」

○…「리그」戰에서 계속「간」서 또 우승의 기회를놓 쳤으니 선수들은 더욱분발하시라!

○…大學街에서도 자랑거리이던 본교 대형 게시판이「호쯔키스」식으로 단신창이더니 목하 이쪽 저쪽 게시판이 산뜻하게 새단장을 하는중.

이를 본 K科의 金준호는「새 게시판 꾸고 제일 시작표가 아닐까」하고지레짐작 하기도.

그러나 제일호로는 演映科 졸업공연 포스터가 붙는데, 번역자 이름이 분명히 漢字로「鄭」字인데「텐」으로 적혀있어, 구성수를 면치 못하고 있다.」

모교 축구 중흥에 후원다짐

在學時 名「골·키퍼」로 활약

이사를 역임하기도. 재임 시 東京올림픽때에는「南北韓 단일대표팀 구성문제」로 북한대표단과 스위스의「로잔느」와공동 전원도 있다.

○…이제 체육계를 떠나긴했으나「마음만은 여전히 체육, 특히 축구에 가있다」. 모교의 체육 발전을 위해 분당한 아울러 요즘은 취미삼아「골프」를 즐긴단다.

興花女專의 체육과를 졸업한 당시의 한국대표가 계체조선수 李永姬(36)女를 두고있는 단란한 가정.

자녀교육은「불질적이라기 보다는 정신적인 자력을 길러주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고. 차녀는 華僑학교에 입학시켰고, 막내 아들(유치원생)은「아버지를 닮아서 인지 운동에 소질을 보인다는」건강유지 정도의 운동만을지 시킬뿐, 선수로는 만들지 않을 작정.

현재 맡음은 한강연변의 조용한 주택에 산다. 주소는 용산구 한강로1가216의19호. <洙>

同門探訪

閔容植同門

〈一宇海運株式會社전문이사〉

○…「축구의 제하時 운동 연습할것이 마땅치 않아 겨울에는 눈이 오기전에 가마니를 깔아두었다가 눈이 온뒤 가마니를 치워가면서 연습했다고 당시의 고충을 말하는 왕년의 東大축구의 名선수.

○…졸업한 뒤 다시 49년에 海士에 입학, 51년 로 활약하고 있는 당시를「축구분야만 아니구 모든 운동경기의 전성기」라고 말하는 閔동문은「그때의 우리 선수들처럼 지금의 축구부원들 자세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고 축구부에 자못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출업한 뒤 다시 49년에 海士에 입학, 51년 로 활약하고 있는 당시를「축구분야만 아니구 모든 운동경기의 전성기」라고 말하는 閔동문은「그때의 우리 선수들처럼 지금의 축구부원들 자세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바란다」고 축구부에 자못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축구의 제하時 운동 연습할것이 마땅치 않아 겨울에는 눈이 오기전에 가마니를 깔아두었다가 눈이 온뒤 가마니를 치워가면서 연습했다고 당시의 고충을 말하는 왕년의 東大축구의 名선수.

○…졸업한 뒤 다시 49년에 海士에 입학, 51년 로 활약하고 있는 당시를「축구분야만 아니구 모든 운동경기의 전성기」라고 말하는 閔동문. 지금은 국내 유수의 해운회사 一宇海運株式會社전무이사로 활약하고 있는 동문은

제7회 學術賞 人文社會부문 本賞 수상작

식량自給化를 위한 穀價정책의方向

李三秀 (農經科 3년)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경제는 年平均10%라는 높은 성장율과 공업화의 발전등,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고도성장 속에서 조국근대화 내지 農村近代化라는 「캐치 프레이즈가」가 온 국민의 입에오르내리게 되었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인구의 51·7%가 농민으로서 인구면으로 보나 經濟構造面으로 보나 농업국임에틀림없다。그러나 오랜동안의「農林不在의 農政으로 말미암아 농가소득의 위축은 물론, 풍년이들어도 「豐年飢饉」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 아래「牧支맞지않는 農事」「날품팔이보다못한 농사라는 어휘속에서「農業은 天下之小本」으로牧化해가는 경향을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같이경제 사정이 빈약한後進國 일수록이러한농업위축은 비단 농업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경제전반에커다란 영향을주게 되는것이다。즉 食量需給 不均衡의 확대로인한 國際退支上의 惡영향 농가의構買力위축으로인한 공산품에需要力低下등은 상대적으로나 農業部門에 경제활동을長期間 에걸쳐 압박해 오고있었다。따라서 지금까지 일관해왔던저곡가정책이 농업생산이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이를 메꾸기 위한새로운 곡가정책의 기본방향이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上〉

○低穀價政策이 農業生産에 미친영향

우리나라는 農家所得의 77·8%以上(68년) 농업통계연보)이 米麥에 의존되므로 穀價政策은 비단 農家經濟뿐 아니라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다시말하면 生産面에서는 농민의 生産意慾을 좌우할 뿐아니라 消費面에서는 穀物의 需給量을 決定하여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더욱 이와 관련하여 米麥間의 代替關係를 생각해보면 自給自足을 위한 食糧 需給計劃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穀價政策은 長期的인 需要를 豫測하여 生産面에서 세밀한 長期對策을 수립하는 한편 價格面에서는 勝落의 폭을 줄이고 生産意欲을 適正利潤으로 확대再生産을 할수있는 價格保障을 해주어야 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政府는 1945年以後로 줄곧 重農政策을 주장하면서도 농민을 위한 政策이라기보다 物價安定과 도시민의 食糧供給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직접적의 低穀價政策으로 일관하여 왔다。이로 인하여 農民의 自給化는 커녕 農民의 販賣와 購買에의한 저식량의 自給化는 커녕 農民의 販賣와 購買에의한 저식량의 自給化는 커녕 農民의 販賣와 購買에의한 저식량